

보도	배포 시	배포	2022.12.8.(목)	
담당부서	감독총괄국 지속가능금융팀	책임자	국 장	이창운 (02-3145-8300)
		담당자	팀 장	김성주 (02-3145-8303)

금감원 「기후리스크 관리모형」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

□ 금감원은 선진화된 「기후리스크* 관리모형(“프론티어-1.5D**”)」을 개발하여 기업 및 금융권에 도움을 주고자 선진당국, 주요 기업, 금융회사 및 학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.

* 기후리스크는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물리적 리스크(물적 피해)와 저탄소 사회로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행 리스크(금융손실)로 구분 ([붙임] 참조)

** “프론티어 - 1.5D”는 지구 온난화를 산업화 이전 대비 +1.5°C 이내로 제한하는 “국제적 합의 성취를 선도”한다는 의미

- 동 협약을 통해 개발되는 모형은 기후변화 및 기후변화 대응 정책(온실가스 감축 등)으로 인한 기업의 손실을 예측하여, 기업들에게는 경영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을 관리토록 하고, 금융권에는 효율적인 자금배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- 동 협약에는 금감원, 영국(대사관), 이화여대, 금융사(교보생명, NH농협금융, 하나금융, 한화투자증권), 비금융사(한화솔루션, 한화토탈)가 참여하여 각 기관의 위치에서 실용적인 모형 개발에 기여하게 됩니다.

업무협약 체결 행사 개요

- ◆ (일시/장소) : '22.12.8.(목), 오후 2시 30분 / 주한 영국대사관
- ◆ (참석자) 금융감독원장, 주한 영국대사, 교보생명 대표, NH농협금융회장, 하나금융 회장, 한화솔루션 대표, 한화투자증권 대표, 이화여대 총장
- ◆ (업무협약 내용) 기후리스크 관리모형 개발을 위한 협력사항 규정
 - 금융감독원 : 참여기관 협력 조율, 기후리스크 관련 노하우 공유
 - 영국(대사관) : 기후리스크 관련 자문, - 금융회사 및 기업 : 데이터 분석 및 연구개발 협력
 - 이화여대 : 연구 방법론 및 모형 개발

1. 참여기관별 역할

- 동 협약에서 금융감독원은 BIS가 제시한 금융당국의 역할*에 기반하여 코디네이터 역할 수행

* 국제결제은행(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)은 "Green Swan (2020)" 보고서에서 금융당국은 정부, 기업,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합리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입장을 조율하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

- 기업은 기후리스크 관련 데이터 분석 및 연구협력, 이화여대는 연구모형 개발, 영국(대사관)은 관련 자문 제공 등의 역할 담당

2. 기대효과

- 동 모형 개발을 통해 ①금융감독 뿐만 아니라 ②산업 및 경제 측면에서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기대효과 예상

① (금융감독 측면) 기후리스크의 선제적 대비 및 감독역량 강화

- 탄소 감축 또는 기후변화 심화 → 기업비용 증가 → 금융회사 손실로 이어지는 기후리스크의 측정 및 관리 수단 제공

② (산업·경제 측면) 기업의 기후리스크 관련 경영 불확실성 관리 및 친환경적 경영전략 수립 지원

-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정책 등으로 인한 예상비용을 추정하여 경영 의사결정 시 불확실성을 완화
- 기후변화 시대에 적합한 경영전략 수립·분석 도구를 제공하여 산업 및 경제의 친환경적 전환 지원

3. 향후계획





- 향후 금융감독원은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과 협의하여 동 모형의 개발 및 적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, 국내 금융권 및 비금융권의 자율적인 기후리스크 관리 인식 제고를 추진할 예정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

붙임

기후변화 관련 금융리스크의 개념

- (리스크 요인) 물리적 리스크(physical risk)와 이행리스크(transition risk)로 구분
 - (물리적 리스크 요인)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실물부문 물적피해가 보험, 대출 등 거래관계를 통해 금융부문으로 파급되는 리스크
 - (이행 리스크 요인)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가경제가 급격히 저탄소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손실
- (금융리스크) 물리적 리스크 요인과 이행리스크 요인은 금융회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유형의 금융리스크로 나타남

리스크 유형	물리적 리스크 요인(예시)	이행 리스크 요인(예시)
신용 리스크 	• 이상기후로 인한 침수·화재 등 발생으로 담보자산의 가치 하락 등	• 고탄소 기업의 채무상환능력 저하로 인한 부도율(PD)·손실률(LGD) 상승 등
시장 리스크 	• 잦은 기상이변 발생에 따른 국가 경제기반 약화로 국채가격 하락 등	• 화석연료 생산기업이 발행한 주식 및 채권의 가치 급락 등
운영 리스크 	• 극심한 기후현상으로 인한 본·지점 업무 중단 등 영업연속성에 영향	• 금융회사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고객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평판 등
보험 리스크 	• 이상기후로 인한 물적피해 증가로 보험금이 준비금을 초과 등	• 고탄소 기업 주식 및 채권 운용 포트폴리오의 가격 조정 등

- (시스템 리스크) 기후변화 관련 금융리스크의 증가는 금융회사 건전성 악화 및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대를 통해 금융시스템 전반의 리스크*로 전이 가능

* BIS(2020)는 기존의 예측불가능한 금융위기를 표현한 "블랙스완(Black Swan)"과 대비하여 기후변화가 가져올 금융시스템 위기를 "그린스완(Green Swan)"으로 지칭

